

## 부산지역 여성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 연설

여러분, 대단히 참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마음이 푸근합니다. 여성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는 항상 걱정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면면을 보면서 부산이란 도시의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이만큼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푸근합니다. 기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뭘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성단체 대표님들도 또 일꾼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여성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부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울러서 부산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맞닿아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련된 얘기도 또 때로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의로, 아무래도 여성단체의 여러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여성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부산문제나 정치문제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먼저 해볼까 합니다.

여성문제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해서 요즘 쟁점화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은, 육아와 보육의 문

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영역에서 호주제문제, 친양자문제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와 폭력에 관한 문제, 그 다음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특히 정치영역 또는 고위공직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진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래야만이 다른 정책들도 제대로 뒷받침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몇 가지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저는 보육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보육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국가의 문제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이가 아이들은 다 키워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겠습니다. (박수)

여성의 문제 자체가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붕괴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보육의 부담, 보육의 고통 때문에 결국 그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진단하고, 보육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성장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5.2%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냐하면 인력공급의 감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성인력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많은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활동을 해야 만이 경제성장도 버티어낼 수 있다. 그래서 50만개 정도의 여성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사회진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약 0.9% 정도의 잠재성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저는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여성문제를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국가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경제문제와 결부시켜 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육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사회적 보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육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 보육분야의 예산이 한 4,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반정도의 보육비를 지원하게 되었을 때 약 1조3천억원 정도의 추가계정이 소요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먼저 깎겠느냐 미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으로 예산이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1등급우선순위 2등급우선순위 3등급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저는 여성 보육의 문제를 1등급 중에서도 최1등급의 우선순위로 두고 1조3천억원 반드시 제가 예산에서 편성을 해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돈 들어가는 것이냐, 그냥 좀 야박합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여성이 50만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고 나서게 되었을 때 이것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약 10조 이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국가경제 속에서 환류하게 되는데 그 부가가치가 들고 도는 과정에서 결국 평균 20% 정도의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상에서 2조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조3천억하고도 남으니까 그 나머지는 여성문제의 또 다른 영역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교육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만 5세 이상 아이들의 무상교육부분도 확실하게 맞추어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방과후 또는 2세 이하의 영아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아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보육에 대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호주제문제에 대해서 긴말 드리지 않고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한번 친양제제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대답을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만 아주 쉬운 것이고 아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용어를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친양자제도 그것도 채택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매매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문제 이것은 몇 가지 입법들이 나와있고 합시다만 이 부분들도 여성지도자들과 깊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꼭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할당제문제에 관해서 저는 정치영역에서는 비례대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만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지역구에 있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채택되면 여성의 지역구 할당부분도 훨씬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있어서 30% , 비례대표에 있어서 50%를 그렇게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정부고위직에서도 30% 이미 공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내실을 기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5급 이상의 정부관리직에서 4.8% 내지 5% 밖에 여성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소위 5급이상의 관리직에도 20% 정도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점차점차 성장해서 고위정책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도 아울러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밖에 열 개쯤으로 제목을 보아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읽을까요? 안해도 자료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구요.

여성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운동도 진

보적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입니다. 또 노동운동도 진보를 추구하는 사회적운동입니다. 그렇게 가끔 제가 보고 생각하기로는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조금 냉담하신 분들은 제가 보아왔습니다만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철학적 기초에 있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자와 소외의 문제 또 평등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를 보아왔습니다만 저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그동안에 가져왔었고 제 스스로 상당히 버거운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노동운동을 해왔고 그것이 서민들의 지휘향상으로 이어져왔었습니다. 제 개인적 삶이 낡은 시대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공적영역에 있어서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진보적이라는 점 그 점을 바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의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이고 지휘하고 지배명령하는 사회구조와 사고 방식에 익숙해 져있는 지도자도 있고 대단히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연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유력한 후보들중에서는 수평적 연대의 관계를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연대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후보는 저는 저뿐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의 문제를 얘기할 때 부산의 한정된 어떤 지역의 사업을 공약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의 정책이 부산에 유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동북아시대를 국가의 첫 번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북아시대가 열려야만이 한국이 살길이 생긴다. 그런데 동북아시대가 열리면 부산은 참 좋아진다.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산의 입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시대가 열리려면 남북대화를 잘 풀어야 합니다. 평화와

협력의 자세를 가지고 남북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냉전사고와 대결적 사고를 가지고는 남북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미래도 열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평화주의적이고 또는 탈냉전적이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지향하는 사람이 또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되면 부산은 잘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서울 집중의 나라를 그대로 끌고 가면 이제 발전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칩니다.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이상 더 이 사회구조를 가지고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살을 빼야 합니다. 지방은 영양을 더 보충하고 체력의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화정책을 확실하게 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권과 정치권의 확대이며 두 번째는 대학의 집중적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경제와 문화와 지식기반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도 각기 특수영역에 있어서 서울대학을 이길 수 있는 대학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에서 고급공무원들이, 정책결정자들이 서울에서 점심시간에 서울의 친구 만나고 저녁에 서울의 동창 만나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뱅뱅 도는 그 관계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사고방식을 서울에서 떼어놔야 됩니다. 집권주의자들로부터 떼어놔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패가 생기를 유착이 생깁니다. 점심 먹으면서 나가서 한 건하고 저녁 먹으면서 나가서 한 건하고 서울이 원체 크게 어느 구석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야 말로 공직사회를 고립해서는 안되지만 지방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방에서 살면서 지방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해나가야 지방정책이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행정수도 지방이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충청권 표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 말로 국가, 소위 공간형성의 재편입니다. 국가개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그렇게 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93년부터 분권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분권주의자입니다.

마지막에 정치문제인데요. 소위 3김 문화가 있습니다. 3김을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안됩니다. 사람은 다 과오가 있게 마련이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정치가들에게 공과 과가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소위 문화 그 시대를 풍미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던 정치문화를 우리가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독재는 끝났다고 하면 민주화 시대에도 권위주의문화가 있었습니다. 소위 지역주의문화, 그 다음에 명분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좇는 정치의 문화이지요. 이합집산하는 정치의 문화라든지 그밖에 가신 측근의 정치 이런 등등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정치문화입니다. 이 정치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누구 사람을 청산한다고 시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낡은 정치행태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면 낡은 정치행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행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질서에 대해서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 맞서오고 싸워왔던 사람이라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떳떳해야 합니다. 각종 의혹으로 무슨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만날 신문에 오르내리는 지도자 가지고는 국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부끄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싸워야 하니까요. 국회는 싸움 만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많은 법안들이 그냥 싸움판에 밀려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떳떳한 지도자의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 마지

막 소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